

‘광밍마을 지진재건 프로젝트’, 세계건축축제에서 올해의 건축으로 선정

<https://www.worldarchitecturefestival.com>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design/world-building-of-the-year-2017-winner-china-house-ludian-earthquake-proof-sustainable-yunan-a8072446.html>

<https://www.archdaily.com/802855/post-earthquake-reconstruction-demonstration-project-of-guangming-village-the-chinese-university-of-hong-kong-and-kunming-university-of-science-and-technology>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베를린에서 진행된 2017 세계건축축제(World Architecture Festival: WAF)에서 홍콩중문대학교와 쿤밍이공대학의 ‘광밍마을 지진재건 프로젝트’가 올해의 건축(World Building of the Year 2017)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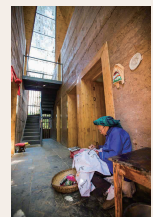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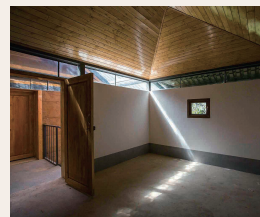
광밍마을은 중국 윈난(雲南)성 자오통(昭通)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2014년 윈난성에서 발생한 진도 6.5의 강진으로 광밍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죽거나 다쳤고, 마을을 이루던 흙집이 대부분 무너졌다.

광밍마을 지진재건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에 지속가능한 재건 전략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프로젝트다. 한 노인 부부가 살 주택이 시범적으로 지어졌으며,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과 저렴함(afford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재건 프로젝트 초기에 마을 주민들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지만, 가격이 비싼 자재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전통적인 방식대로 흙을 주요 자재로 이용하되 점토와 모래·유리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내구성과 내진성능을 향상시켰다. 철재 구조와 콘크리트 벨트를 함께 활용해 구조를 보강하고 수직 균열을 방지하였다. 콘크리트 벨트는 흙 안에 감춰지는 식으로, 건축물 외관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처럼 통일되어 보인다. 이 외에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중 유리창과 절연 지붕을 설계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고안된 주택은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과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스스로 지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주택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건축 기술을 생계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든 재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전통적인 건축방식과 주거방식을 보존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축으로서 광밍마을 지진재건 프로젝트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전통적인 소재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구조를 결합하여 좋은 건축을 만들어 낸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CUHKU, KUST

광밍마을 지진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시범주택

자료: <https://www.archdaily.com/802855/post-earthquake-reconstruction-demonstration-project-of-guangming-village-the-chinese-university-of-hong-kong-and-kunming-university-of-science-and-technology>

일본 국토교통성, 전국의 빈집·빈땅 정보 검색 서비스 시범 운영

http://www.mlit.go.jp/report/press/totikensangyo16_hh_000158.html

<https://www.homes.co.jp/akiyabank/>

<https://www.akiya-athome.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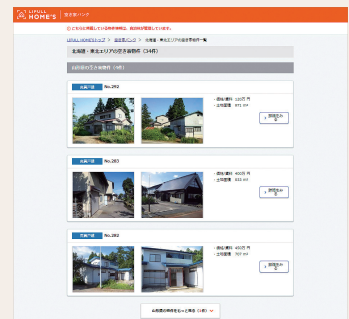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이 전국의 빈집과 빈땅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빈집·빈땅 은행(全国版空き家・空き地バンク)’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약 40%(763개)가 빈집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276개)는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 항목도 각각 달라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제공 정보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고 비교 검색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전국 빈집·빈땅 은행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매물마다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표준화하고, 전국의 매물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소비자들의 매물 검색이 용이해지면서, 빈집과 빈땅에 대한 유효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 운영에 앞서 이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가 진행되어 주식회사 라이프풀(Lifull)과 앳홈(At Home) 두 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시범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약 200개 지자체가 시작 단계에 참여한 가운데 준비를 마친 지자체의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게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성은 앞으로 제공 정보의 범위를 전국의 지자체로 넓혀 갈 예정이다. 연말까지 약 1,000개 지자체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또한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빈집·빈땅 매물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조건 검색’ 등 검색 기능을 향상시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빈땅 정보 검색 서비스

자료: www.akiya-athome.jp, www.homes.co.jp/akiyabank

가우디의 카세 비센스, 박물관과 문화 공간으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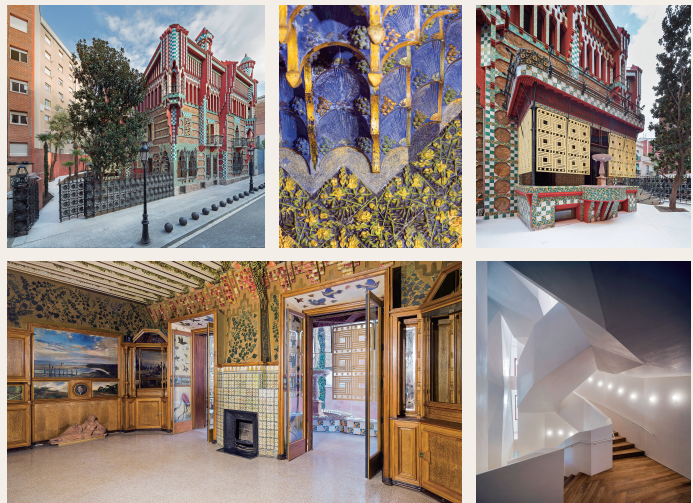
<https://casavicens.org/>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카사 비센스(Casa Vicens)가 리노베이션을 통해 대중을 위한 박물관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스페인의 부동산·금융 중개업자였던 마넬 비센스(Manel Vicens)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진 카사 비센스는 이후 가우디의 경력과 건축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가우디의 첫 주택 프로젝트이면서 카탈루냐와 유럽에 모더니즘 운동의 시작을 알린 건축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200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카사 비센스는 가우디의 설계에 따라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본래의 구조가 지어졌고, 1925년 후안 바티스타(Joan Baptista Serra de Martínez)가 확장하여 재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우디가 설계한 공간에는 가우디의 색깔과 건축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복원이 진행되었다. 박물관과 문화 공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1925년에 확장된 공간을 주로 리노베이션하여, 원래 가우디가 설계한 공간은 큰 변경 없이 보존되었다.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대적인 계단이 조성되었으며,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모든 층과 옥상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카사 비센스 2층에서는 상설 전시가 이루어져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복원과 리노베이션을 거쳐 공개된 카사 비센스

자료: 카사 비센스 보도자료(<https://casavicens.org/press/>)

시드니, 학교 시설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에 부족한 문화시설 공급

<http://www.sydneymedia.com.au/delivering-more-facilities-for-growing-communities/>



©Shutterstock

앞으로 시드니 지역 내의 커뮤니티 그룹은 시드니 전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과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드니 시와 뉴사우스웨일스 교육청이 맺은 새로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공유 가능한 시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최근 발표된 학교 재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새로운 공유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시는 이미 많은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린스퀘어(Green Square), 애시모어(Ashmore), 헤럴드파크(Herold Park)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향후 15년 동안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선하는 데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지역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교육청이 학교 시설의 개발을 위해 ‘School Assets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이번 협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시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공동 사용과 공동 개발을 통해 모두의 편의와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주로 평일 수업시간 동안 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하며, 주민들과 커뮤니티 그룹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시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미 뉴타운공립학교(Newtown Public School)와 운동장 및 스포츠 코트를 지역과 공동 사용할 것과, 울티모공립학교(Ultimo Public School)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Wentworth Park)에 임시학교를 운영하는 등 협약 내용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전역의 학교는 정식 요청이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수영센터, 운동장, 공원 등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학생 수가 2031년까지 21% 증가하고, 그중 80%가 시드니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구 밀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oct/06/inner-city-living-makes-for-healthier-happier-people-study-finds?CMP=twi_gu

<https://nextcity.org/daily/entry/researchers-calculate-healthiest-city-density>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plh/article/PIIS2542-5196\(17\)30119-5/fulltext](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plh/article/PIIS2542-5196(17)30119-5/fulltext)

도심보다 교외에서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소위 말하는 ‘웰빙(Wellbeing)’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도심에 사는 사람이 교외 주민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사회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은 런던(London), 글래스고(Glasgow), 카디프(Cardiff) 등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22개 영국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밀도와 비만을 등 건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밀집되고 개발된 주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끼리 거리가 먼 교외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보다 비만율이 낮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헥타르당 32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민들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홍콩대학교 친모이 사르카르(Chinmoy Sarkar) 박사는 “도시가 더욱 콤팩트(compact)해진다는 것은 곧 걷기 좋은(Walkable) 공간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은 더 잘 디자인되고 사람들이 가 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덜 이용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헥타르당 18개 주택이 있는, 무질서하게 확장되어 있는(sprawl) 교외지역의 경우 비만율이 가장 높고 운동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선택권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교외 지역이라도 큰 공원이나 공공공간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지만, 도심 지역보다는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외에 17개 주거지역과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르카르 박사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shutterstock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으로 조성한 임대주택 완공

<http://vancouver.ca/news-calendar/celebrate-opening-of-vancouvers-first-land-trust-building.aspx>

<http://www.cltrust.ca/>

밴쿠버 시가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을 통해 조성한 첫 임대주택 'BRice'를 완공하였으며, 지난 10월 개장식을 열었다. 1개의 침실이 있는 48개 호로 구성된 BRice는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임대될 예정이다.

공동체토지신탁은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이 지역 땅을 소유·관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밴쿠버 시는 공동체토지신탁 재단에 공급가 기준으로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시 소유의 토지를 99년간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임대하고, 비시장형 주택을 개발하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주택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저렴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BRice를 조성하였다. 토지와 주택이 투기 시장이나 경쟁적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렴 주택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시는 이번에 완공된 BRice 외에 2개 지역에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BRice가 주로 1인가구나 부부를 위한 규모로 조성되었다면, 다른 두 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각 220개 호와 90개 호를 공급하게 된다.

BRice의 입주자는 수입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입주자가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쓰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BRice의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에서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 재단(Community Land Trust Foundation)의 구성 및 역할

-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 재단: 소유주
- 프레이저뷰 주택협동조합(Fraserview Housing Co-operative): 운영 및 투자자
- 샌퍼드 주택협회(Sanford Housing Society): 운영 및 투자자
- 티크바 주택협회(Tikva Housing Society): 운영 및 투자자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택부(BC Housing): 출자 및 투자자
- 뉴마켓 펀드(New Market Funds): 출자 및 투자자
- 밴쿠버 시(City of Vancouver): 토지 소유

멜버른, 도시 전역 주차 정보 데이터 공개

<http://www.melbourne.vic.gov.au/news-and-media/pages/melbourne-opens-the-door-for-parking-innovation.aspx>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governance-transparency/open-data/Pages/on-street-parking-data.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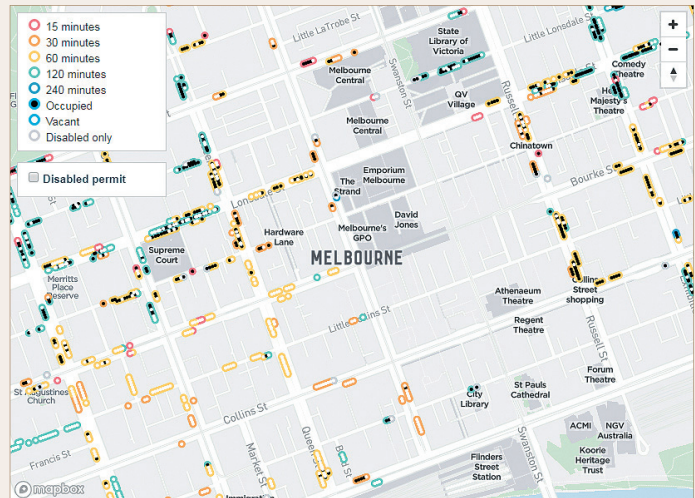
멜버른시가 시 전역의 주차 정보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1월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시는 데이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도시계획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정보를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 정보 데이터도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개되었다.

기본적으로 시에 설치되어 있는 4,300개 지상 주차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게 된다. 차가 해당 주차 구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센서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구역에 현재 주차가 가능한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간 정보, 해당 주차 구역이 장애인 주차 구역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들은 2분마다 업데이트된다.

멜버른 시장 직무대행 애런 우드(Arron Wood)는 “시민들이 어디에, 언제 주차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는 사업자들과 스타트업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데이터 공개의 의의를 밝혔다.

시는 이번 데이터 공개를 통해 사람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고, 주차를 위해 시민들이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통이 원활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 대기오염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멜버른 주차 정보 데이터

자료: <https://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governance-transparency/open-data/Pages/on-street-parking-data.aspx>